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시상중계 ①

주제 : 선의 본질과 의미

‘본래 부처’ 깨달으면 날마다 좋은 날



“참선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양반이 왜 상놈이 되려고 노력하니까?”라고 되물습니다. 선은 우리가 논의해서 말로 하거나 들을 때 우리 눈동자에 모래를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머무는 일이기도 합니다. 깨달은 분이 선의 본질을 드러내 대중에게 설법함에, 법문을 듣고 단박에 깨달아 하더라도 그것은 백옥같은 맨살을 긁어서 상처를 낸 것과 같습니다. 즉, 법을 일러준 선사도 괜히 백옥같은 맨살을 긁어서 상처를 만든 것과 같고 들어서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선입니다. 이 일구(一勾)의 세계는 모든 존재에 보편되어 있어 진리라 하고 삶이자 사실이고 본래 모습인데, 여기에는 뉘는다느니 증득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군더더기이며 사족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은 대부분 화두 듣고 참구하는 것으로만 있는데, 그 예는 잘못된 것입니다. 선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인가, 꼭 해야 하는가? 여러분 선은 왜 닦습니까? 과연 선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 신도님들이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본래 성불임을 깨달으면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의 첫번째 법사로 나선 고우 스님은 최상승선의 단박깨침은 작위적인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몸 일부에 불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내가 있다는 착각 벗어나면 우리 모두 부처

바로 그게 선입니다.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제 말 듣고 보는 바로 그것이 선입니다.

내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부처요 불성이란 말이 성립됩니다. 부처님개선 깨치고 보니 유정(有情)과 무정(無情),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존재가 연기로 존재하고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했습니다. 존재가 연기자 법이며 여래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선이고 부처입니다. 따라서 중생이 부처되기 위해 참선한다는 생각을 내면 틀린 소리일 뿐더러 시간만 낭비됩니다. 이 존재 자체가 선이고 부처란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열반경>과 <아함경> 등 많은 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 이를 믿지 않으면 허송세월하기 십상입니다.

불성이 내 몸의 일부에, 잡초 속의 금덩어리처럼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입니다. 듣고 보는 마음과 몸풍이도 부처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여서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다는 걸 확인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아요. 우리는 다 부처입니다. 뒤에 계시는 불단 위의 부처님도, 이 마이크도 굿도, 이 법당도 다 부처입니다. 물론 이해없이 믿는 것은 맹신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왜 부처인지 알면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연기(緣起)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깨친 법은 곧 연기가 공이기에 무아인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이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에 위배되는 것은 허구이고, 허상입니다. 이를 철저히 깨는 것이 선종입니다. 선종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중도연기를 가장 정확히 계승한 종파입니다. 선은 다만 체험을 강조할 뿐, ‘본래 성불’임을 철저히 계승한 종파입니다. 다른 종파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하지만, 선종은 진리와 사실 그자체인 달만 인정하기에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간화선 수행자들이 많이 참석하였지만, 그 화두를 정신통일이나 의심하기 위해 드는 것이라

고 아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화두는 의심하기 위한 것도, 정진집중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간화선은 서기 1000년 전후 대에 스님이 주장했습니다. 그 이전 250여년전 마조 스님 시대에만 하더라도 ‘의심하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조 스님 당시엔 어떻게 의심했을까요?

어느 날 늑담법회 스님이 마조 스님께 여쭙으셨습

고우 스님의 수행법

고우 스님의 수행법은 ‘뉘는 것이 없음을 닦는’ 무수지수(無修之修)의 단박깨침(頓悟)을 강조하는 정통 조사선, 즉 최상승선의 입장이지요. 따라서 수행법이 없다고 해야 정답이다. 그러나 수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지 설명하자면, ‘본래 부처’임을 철저히 믿고 늘 성직적(性直)인 가운데 한 생각 일어 난 그 자리를 돌이켜 비취 보는 ‘회광반조(廻光返照)’ 공부로 요약된다.

<선요>에서는 물을 저다가 우물에 붓듯이, 물에 비친 달 건지듯이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우물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더 차지 않고, 물에 비친 달을 아

‘뉘는 것이 없음을 닦는’ 돈오선

무리 건지려 해도 얻어지지 않듯이 깨달을 것이란 없습니다. 보고 듣는 그놈이 하는 일이다. 집착만 세파해 버리면 됩니다.”

고우 스님은 여러 수행법을 뒤더라도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꼭 믿고 해나가면 된다고 말한다. 참선뿐만 아니라 봉사, 주력, 열불도 좋다. ‘본래 성불’임을 믿고 근기에 맞게 공부하며 주의할 점은 자기를 비우고 쉬는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고우 스님은 선(禪)은 부처님의 오리지널 수행법인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본다. ‘육조 스님의 제자인 영가 스님은 사마타를 ‘직적성성(直徹性醒)’, 위빠사나를 ‘성성직적(性醒直徹)

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스님께서는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게.” 법회 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가지 한 대 후려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이서는 함께 역모를 꾸미지 않는 법이라네. 내일 찾아오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법회 스님은 다음날 다시 법당으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돌아가고 내가 상당(上堂)할 때를 기다렸다가 나오게. 그대에게 증명해 주겠네.”

법회 스님은 여기서 바로 깨닫고 말했습니다.

“대중의 증명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법당을 한 바퀴 돌더니 가버렸습니다.

마조 스님은 법회 스님에게 여럿이 있을 때도, 단

들이 있을 때도 ‘무엇이 선인가(祖師西來意)’를 말하지 않았습다. 천연 반대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분별심을 떠난 존재의 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법회 스님은 밤새도록 큰 의심을 낸 후 다음 날 질문했을 겁니다. 요즘 선사라면 “모르면 의심하라. 그리고 해답을 가져오너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조 스님은 자연스럽게 의심을 돈박사진 것입니다. 결국 의심하기 위해 화두를 드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고, 답을 몰라서 저절로 의심이 드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서경>의 저자인 대혜 스님도 무턱대고 의심하라 하지는 않았습다. 모르는 것을 의심하라 했지, 의심하기 위해 화두 들라 한 게 아닙니다.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분별을 초월한 것이 화두입니다. 분별하는 한 화두를 타파할 수 없습니다. 법회 스님이 마조 스님의 말을 듣는 순간 주객이 무너진 자리에서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오는 초음파, 즉 ‘뉘’ 하는 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주객

寂寂’으로 표현했습니다. 6바라밀 수행과 열불, 주력, 참선 등의 모든 수행법이 ‘직적’과 ‘성성’을 강조합니다. ‘성성’은 혼침(昏沈, 조는 것)하지 않는 것이며, 직적은 ‘도거(跛擧, 망상)’에서 벗어나 상태입니다. 의도는 직적(直徹)만을 강조해서 삼매에 들면 모든 행위가 정지되지만, 불교 삼매(三昧)는 모든 행위를 하면서도 화두를 들 수 있습니다.”

고우 스님이 <육조단경> ‘정혜불이품’에 ‘정혜(定慧)가 하나가 되더라도 도가 아니다. 하나가 되어 통류해야 한다’라는 대목을 보다가 인목이 열린 것도 정(사마타)과 혜(위빠사나)를 함께 하는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원장 초청 대법회 시상중계로 인해 5월 12일(474호)까지 안양구 교수의 경연이아기는 25면에 게재하고, 25면의 ‘스님이야기’는 없습니다.

자연치유 의학 연구센터 백초대체의학 수기연구소

“지장보살 원력입은”
* 佛心의氣로 신의 원력 함께 나누는 삶의 원력!!
* ‘당신도 건강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분 불면증, 우울증, 생리불순, 늘 피곤하면서 의욕이 없는 분 허리, 목DISK로 고생하는 분 (초기디스크) 만성 변비, 요실금, 소화장애, 좌골신경통, 중풍 예방관리 어린이 스트레칭 특별관리

신비의氣

* 수강상담 스님이나 불자님을 특별지도 함
나무마이반아바라밀 법연거사입장

예약 상담 02-733-0550
011-237-0550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응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 ~ 9시) 숨차지 않고 활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리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호흡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 다스리는 소침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4년 2월 28일 토요일 군자전철역 4번출구 → 법왕정사 건너편 5번출구 등등주유소 앞 4시 30분 출발
- 차량 예약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정사 법왕정사 수행 중심 도량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역 → 모곡중점아차 전화 요망

한국불교범음범패 대학원 제2기 수강생 모집

- 개강 : 4월 초
- 수강요일 : 매주 수, 목 4시 ~ 6시까지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을 수료하며 초심자라도 어렵하게 불교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과정

- 초급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징, 북) 다루는 법, 도량석, 쇠송, 각단예불, 관음기도법 등
- 중급과정(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음,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시 등(기초범음범패)
- 대입과정(6개월) : 영산제, 예수제, 수륙제, 각종어산(범음범패), 49제
- 특수반 :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77-54번지 011-849-0961, 051-554-1518
한국불교의식대학원 원광사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가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름수 있음)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적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병의령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우고 세운을 같이 읽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침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범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어떤 익한 중생신도 단박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적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접어줍니다. (모든 병의령)
- 무명,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미귀에 놀리고 환형으로 잠무 이루는 분
- 법마다 가위놀리고 악몽을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불법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지못한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 조상의 음력으로 사업성공을 빌원하는 분, 하는말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2월15일-조계사 대웅전)

으로 나뉜 내 의식을 한방에 깨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이게 공부이고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식의 그 말을 통해서 바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깨치라고 제시하는데 못 깨치니까, 하는 수 없이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문근기들에게는 깨치게 하는 방법이나가 그냥 놔두는 거죠. 의심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또 잘못될까봐 <선요(禪要)>에서는 '속맥(寂索)도 모르고 노낭(奴郎)도 모르는 놈이 하는 것이다'고 했어요. 콩하고 보리도 못가르는 놈, 신랑하고 종을 못 가리는 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속맥도 모르고 노낭도 모르는 놈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선종은 철저히 상대 개념을 벗어나서 절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행동하고 말하는 겁니다.

속맥도 모르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최상승 공부를 하고 있고 최고 근기다 하면 그 분상의 의식구조에서는 목과 어깨에 기브스하게 되죠. 그런 스님과 신도가 많이 있잖아요. 폼으로 공부하기 위한 공부, 의심하기 위한 의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어떤 고정관념도 무장해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지기 전에는 뭇가 얻을 게 있고 깨질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지고



선 수행 불조성에 앞장 서고 있는 고우 스님.

나-너 · 있다-없다 초월하는 것이 화두 싹 깨달으면 비교 · 분별하는 마음 없어져 평온

나니 내안에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었는데 있고 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얻을 것이 없었구나, 내 안에 모두 완성되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안거지요. 그래서 선어록에도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게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깨칠 것이 있고 얻을 게 있다는 공부는 그래서 잘못된 선 공부입니다.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본래 성불'임을 알고 공부 하는 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공부입니다.

그렇다고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어서도 안됩니다. 중국의 입어당은 불교를 허무적인 종교로 표현했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돌아보면 하늘에 구름이 걸히는 것과 같아서 햇빛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니, 이것이 지해광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空)을 깨달으면 비교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서 평등하고 편안하게 그달림도 없이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됩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을 보아도 싫어하지 않는, 양면을 초월한 자유 자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래 성불'을 전제로 공부하는 것과 같다

■ 고우 스님

1937년 성주 생으로 20살 때 청암사 수도암 법회스님을 은사로 출가. 관음 스님으로부터 <기신론>을, 고봉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혼해 스님으로부터 <원각경>을 배운 후 제방 선원에서 정진. 1968-9년 문경 청암사 선원을 재건해 총림특별선원의 기틀을 다지는 등 봉암사 출사사 금암사 용주사 각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 법랍 47년.

없다를 구별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성불을 믿고 이해하면 금생에 확 절대오는 듯해도 정(正)과 사(邪)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알고 공부하면 내생에는 그 힘으로 재수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으니 효봉 스님과 같은 대 발심을 내어 정진합니다.

글=김재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문, CD와 테이프를 보고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동영상 CD와 오디오 CD, 테이프 등으로 다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묻고 답하기' 현장

윤회 주체인

아뢰야식도 싹

고우 스님의 법문이 끝난 후 바로 즉문 즉답(卽問卽答) 시간이 이어졌다.

한 50대 거사가 일어나 질문했다. "아뢰야식(제8식)은 자성(自性)과 같습니까. 다른 것입니까?"

고우 스님은 좋은 질문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아뢰야식과 자성은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효능면에서는 다릅니다. 아뢰야식, 이 정도만 알아도 답답해서 악한 생각과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입니다. 하지 만 이 단계를 극복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뢰야식을 보고 착각해서 공부를 멈추고 만니다."

중주에서 올라왔다는 30대 거사의 두번째 질문은 더욱 난해했다.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여 '무아'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윤회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고우 스님은 두 번째 질문에도 주저없이 답변했다.

"세계의 학자들이 한평생 연구하는 분야가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라는 '윤회와 무아'에 대한 주제입니다. 학자들은 이 문제에 평생 몰두하지만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윤회의 주체는 아사다시피 제8식인 아뢰야식입니다. 그러나 아뢰야식 역시 연기된 현상하기에 이 윤회하는 식 역시, 무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연기된 것이기에 무아(제법무아)'라고 하셨듯이 전혀 이론적으로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되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공이자 연기이기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법을 들며 여러분은 이것이 꼭 찬 걸로 보이겠지만, 이 컵이 그대로 공인 것입니다.)"

세 번 째 역시 50대 거사의 질문. "스님께서는 의식을 내기 위한 의식은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참 의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래성불인 그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의식이 필요하겠지요. <선요>에 서도 대본심, 대의심, 대신심을 공부의 필수요건으로 말했지만, 이를 다 갖추더라도 자기가 파놓은 구렁이에 떨어져 있는 꼴입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도록 용맹 정진해도 구렁렁이에 빠져 허우적 대는 꼴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큰 의식이 든 것이고, 이걸 깨치면 성불입니다. 왜 구렁렁이에 빠져 허우적 대는가를 알면 얻은 게 없이 이미 다 갖춰져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8>



나를 사랑하는 방법

사람들은 제각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개개인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는 이기주의가 그릇된 것이다. 이런 이기주의 성향을 생활화자들은 이기적인 유전자(DNA)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인간 내부에 뿌려 박혀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학설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을 지켜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자신보다 소중한 것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근심없이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즐림, 음주 등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운동도 하지 않는다. 흡연 등은 결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근심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대답한다. 왕비는 왕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왕으로부터 자기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듣는다. 왕은 왕비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그들의 대화 내용에 다소 자신이 없었던지 붓대를 찾아가서 그들의 대화에 대하여 말한다. 이에 붓대는 그들의 결론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결론이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동서남북 사방을 주의 깊게 돌아다녀 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각 개개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므로 서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결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다루고 사랑하는 것일까? 붓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몸·말·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이다. 비록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 반대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는 원수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과 같다. 일시적으로 비

자신이 행한 선업과 악업 끝까지 따라다녀 선한 행위하는 것이 자신을 진정 아끼는 것

은 욕망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근심이 없으려면 욕망을 없애야 한다.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려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붓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가르치고 있다.

상유타 니카야의 한 경전에서 코살라(Kosalā)의 왕인 파세나디(Pasenadi)와 그의 왕비 말리카(Mallikā)의 대화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세나디 왕은 말리카 왕비에게 물었다.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는가?" 왕비는 대답했다. "위대한 왕이시여!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는지요?" 왕은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왕이 왕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 왕비로부터 "물론 위대한 왕이네 빠져 허우적 대는가를 알면 얻은 게 없이 이미 다 갖춰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

록 이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고통과 상처를 안겨다 주므로 악한 행위는 원수의 행위와 같다. 자신이 행한 선업과 악업은 그림자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을 따라가므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배척하기도 한다. 미끼가 달려있는 낚시 바늘을 무는 물고기처럼, 감각적인 쾌락, 재산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선업을 짓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며 반대로 악업을 짓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이다. 악업에는 다음과 같이 10종이 있다. 실설, 도둑질, 음란 행위, 거짓말, 이간질 하는 말, 욕설, 부풀리는 말, 탐욕, 분노, 사견. 10업은 자기 자신과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다. 반대로 10선업은 자기 자신과 다른 생명체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당신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요일	오후반(14:00~)	저녁반(19:00~)
월	명리학	사암침술학
화	명리학	사암침술학
수	사암침술학	명리학
목	사암침술학	명리학
금	정통 풍수지리	매화역수
토	명리학	사암침술학
일	사암침술학	명리학

* 저자 직강으로 책임지도. 중목 수강가능하며 교재 무료.
* 매화역수 개인지도가능.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중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종각 대법종불사 동참 바랍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인연있는 종각, 법종 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무량공덕 되시기 바랍니다.

옛 신리에는 국은기 기물자 황룡사 9층 석탑을 세워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뤘고, 고려인은 호국의 일념으로 8만대장경을 조성하여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은성사 법륜스님은 옛 신리인과 고려인의 진술한 마음과 정성을 이어받아 3만 3천근 대 법종 탁발 불사를 시작하여 세계적으로는 불인한 핵 대리의 공포를 소멸하여 인류가 평안하도록 하고 국내로는 정치적 불신과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중생의 고뇌와 아픔을 소멸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 법종 불사가 원만히 예정대로 성료되는 2005년은 우리민족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입니다. 2005년 을유년은 해방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일제치하 36년의 고통과 설움에서 해방을 맞이 했듯이 삼천리 강산에 삼천만 중생이 새로운 희망을 맞도록 불제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 뜻깊은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정성껏 동참바랍니다.

◆ 총 합 52013-56-014321
◆ 광주은행 148-121-656943 (예금주:법륜스님 한철상)
* 입금하여 주시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서를 은성사로 알려주시면 대 법종 및 동판에 이름을 각인합니다. 참여한 불자님들의 공덕이 만세에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은성사 주지 법륜 합창
은성사 종각 대법종 불사 후원회 회장 조영희(신도회장) 합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옥동 139 은성사
전화: 063)561-1826 / 561-1783, 011-634-4498, 019-501-1826

속의 신비함 힘!!!

→ **숯가루는**

차콜이라 불리우는 숯가루는 미국에서나 유럽에선 오래전부터 FDA의 공인을 받아 우수한 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콜의 최대 장점은 몸속에서 흡착해 독 작용, 피를 맑게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백초상, 송인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

- ▶원적외선 방출 ▶미네랄 방출
- ▶탈취효과 ▶여과 애독 작용 ▶공기 청정

취급(제품)목록

- 남궁환 - 숯구이판
- 숯반송(1,3,5인용)
- 전골기 - 다기세트(반송대 유·무)

* 특장 용도설명 : 게트월(과일, 음료) (Get wall of CAT2)

※ **참숯원적외선 구이판은 절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 타지 않습니다 절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발송(원) 및 도서출간

- KBS (2004년 1월 30일) 무엇이든 물어보게요 (숙예대만 병행)
- 라디오 100의 건강유익하게, 웃어 사람을 알린다. 이영림 숙기투 유방 등...

• 한국 신기술 인정 (제2003-024)
• INNO-BIZ 기업 (제3031-0292)
• 벤처기업 (제021323031-3-1276호)
• 특허 (제03761124, 제0353684)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5 킴포오피스빌 709호
TEL. 053)753-5556 / 080-767-7700 FAX. 053)753-5569
http://www.riseupkorea.com